



■ 기획 · 운영 · 지도의 팀 웍으로 추진한다

직장의 레포츠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할을 맡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역할인가를 살펴보는 일은 레포츠활동의 효과적인 전개를 도출해 내는 일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직장의 레포츠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역할을 크게 나누어 보면 세가지로 볼 수 있다.

한가지 점은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기획」의 역할이다. 개별적 활동을 어떻게 배치·연관시켜서 어떻게 연간계획으로 진행할 것인가 즉, 연간계획을 작성하는

일이다. 두 번째 점은 기획에 따라서 준비된 활동을 홍보하고 참가자를 모으는 일과 함께 실제의 활동을 운영, 진행시켜 가는 「운영」의 역할이며, 세 번째는 건강체조, 태극권 등의 지도가 필요한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인데 그 활동 방법을 가르쳐 주는 「지도」의 역할이다.

「기획」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인트가 된다.

① 기획하는 본인이 즐겁게 생각하는 활동인가?

② 세대간 의식차를 줄일 수 있도록 고려되었는가?

③ 그 활동의 목적이 구체적인가? 다시 말해서 '건강증진에 이바지 한다'고 하는 등은 추상적으로서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전제인 것이다.

④ 연간의 여러 가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하는 점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성인병 검사에 있어서 비만 경향인 사원을 10% 감소시킨다' 등

⑤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업무의 상호 관련성이 있는가?

「운영」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들 수 있다.

① 강제동원이나 명령에 의해서 참가자의 의사를 무시한 모집이 아니라, 흥미나 관심을 갖도록 하고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참가하도록 홍보하여 모집한다.

-
- ②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참가사원들에게 즐거움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맨이라는 자각
 - ③ 담당자들만 전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중에서 지원자를 구성하도록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도」에 있어서, 이것은 인사 노무담당자가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지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룰을 설명하거나 레포츠교실의 사회를 진행하거나 하는 일에 포인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① 사무적으로 이어지는 대화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즐겁게 시작한다는 분위기로 시작한다. 때에 따라서는 농담을 주고 받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② 참가자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말하면

이해하기 쉬운가를 생각한다.

③ 질문 등을 하는 시간을 준다거나, 평상시에 참가자들에 대한 납득과 이해를 얻으면서 추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레포츠 활동은 참가자가 어떤 기분으로 스스로 활동하게 할 것인가가 중심적인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들을 답습하는 일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참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勞動衛生 - 최종희〉

